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 운영

장수군, 블랙야크와 산악레저 중심 도약 위한 민관협력 프로젝트 10월 31일까지 진행

장수군이 고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손잡고 산악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장수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프로젝트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블랙야크알파인클럽(BAC)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장수군을 따라 흐르는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의 주요 산봉우리 14개 인증지점을 모두 방문해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지점은 백두대간을 기준으로 △덕유산 서봉(장수덕유산), △구시봉(깃대봉), △영취산, △백운산, △광대치, △봉화산, △봉화산 철쭉단지(매봉), △사치재까지 8곳, 금남호남정맥을 따라 △정안산, △사두봉, △신수산, △팔공산, △천상대미, △삿갓봉 등 6곳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번 코스는 장수군의 총 14개



장수군이 고기능성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와 손잡고 산악레저 관광도시로의 도약에 나선다. (사진은 ㈜비와이엔블랙야크와 지난해 민관협력 지역상생협력 체결 모습)

명산이 포함되어 있어 장수만의 수려한 산악자원을 그대로 담아냈다는 평가다.

완주자에게는 블랙야크에서 20,000 BAC코인을 제공하며, 장수군은 선착순 1,000명에게 '장수 K-샤모니' 스테인리스 컵과 키링을 기념품으로 증정한다.

최훈식 군수는 "이번 챌린지를 통해 장수군이 산악 레저의 성지 '한국의 샤모니'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많은 산악인과 관광객분

들께서 장수의 아름다운 자연과 명산의 독특한 매력을 직접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이번 마운틴 챌린지를 시작으로 트레일러닝을 결합한 '장수 K-샤모니 트레일링 챌린지' 등 다양한 산악레저 콘텐츠를 단계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체류형 산악관광도시로 발돋움한다는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본격화

무주군, 총 26가구 선정... 1가구당 최대 600만원 지원

무주군이 '2025년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본격화한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총사업비 1억 5천6백만원(복권 기금 50%, 군비 50%)이 투입된다.

올해 사업 대상 가구는 총 26가구가

며, 무주군은 1가구당 최대 6백만 원을 지원해 단열 보강, 고효율 창호, 보일러 등 친환경 설비 설치를 지원한다.

최영길 무주군청 민원봉사과 주거복지팀장은 "에너지 효율과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집수리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그린 리

모델링 사업이 어려운 이웃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복지 실현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적용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무주군은 그린 리모델링 사업 외에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 등의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 중으로, 올해 총 76곳을 수리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천적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 실시

무주군은 10일 안성면 어울림센터에서 '천적 활용 친환경농업 실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증진 기술 보급 시범사업'의 하나로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농가에 적용을 확대할 목적으로 실시돼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했던 토마토 재배 24농가는 이 자리에서 천적의 생태를 비롯해 효과적인 투입 시기와 방법,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주)그리아그로텍 김진호 강사가 시범사업에 투입

되는 '비파애꽃노린재'와 '담배잠자리' 등 주요 천적의 특성과 관리 요령을 중심으로 다뤄 관심을 모았다.

농가들은 "천적을 활용한 친환경 재배가 안전하다는 점에서 이점이 커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라며 "사제 중심 교육이다 보니 실질적인 기술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원예작물 천적 투입 효과증진 기술 보급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토마토 재배 14농가 6ha에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지난해에는 천적 곤충 방제를 위해 10



농가(1천만 원)를 지원했다.

김준희 무주군농업기술센터 기술연구과 소득작목팀장은 "기후 변화와 농약 저항성 해충 증가로 인해 친환경 해충 방제 기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천적을 활용한 농업이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실현의 토대가 되고 농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공공용사유지 분할 측량비 지원

진안군, 재산권 보호·주민 갈등 예방 기대

진안군은 도로나 농로 등 공공시설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사유지로 남아 있는 토지에 대해 분할 측량비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1970년대 새마을운동 등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마을 안길, 농로, 하천 등에 편입되었지만, 지목 변경이 되지 않아 여전히 개인 소유로 남아 있는 사유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사유지는 건축 인허가 등 재산권 행사 시 공공용지를 제외하기 위해 측량이 필요하지만, 그 비용이 토지소유자에게 전가되어 왔다.

또한 공공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를 둘러싸고 이웃 주민 간 통행·진입 관련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지기도 했다.

진안군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의

분할 측량을 목적으로 할 경우 측량비를 지원해 토지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고 향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지원 신청은 해당 토지소유자가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을 방문해 '공공용 사유지 분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군은 토지 현황 및 신청 목적을 검토한 뒤,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의뢰하고 측량비를 지급한다.

측량이 완료되면 성과도를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용지로 활용 중인 사유지를 보유한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주민설명회 가져

진안군은 현재 추진 중인 진안고원 친환경 목조전망대 조성과 관련해 군민과의 소통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진안군청 강당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사업 추진 계획(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농민기업에도 불구하고 11개 읍·면 주민과 각 기관·단체 등 190여명이 참석해 사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전춘성 군수의 군 발전에 대한 구상 설명, △목재문화진흥회 전문가의 건축자재로서 목재의 이해와 전망에 대한 특강 △산림과장의 목조전망대 추진계획(안) 설명, △참석 주민들과의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의 순서로 진행됐다.



일부 주민들은 목조전망대 조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지만, 다수 참석 주민들은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사업추진으로 마이산에 이은 새로운 랜드마크를 조성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진안을 위해 뜻을 모았다.

전춘성 군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진안의 자연과 문화, 미려가 어우러지는 랜드마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전문가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진안다운 친환경 전망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 운영

장수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불안,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5일 천천면을 시작으로 13일까지 장계면과 장수읍에서 총 4일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찾아가는 마음 안심버스'는 이동상담 차량을 활용한 현장 방문형 서비스로 정신건강 검진과 심리 상담 등 맞



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운영 내용으로는 △스트레스 측정기를 통한 스트레스 검사 △심리 척도지를 활용한 정신건강 상태 평가 △전문상담 인력과의 일대일 심리상담 등이 포함된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군, 신규농업인 위한 영농정착 기술교육 개강

진안군은 귀농·귀촌한 신규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2025년 영농정착 기술교육'을 10일부터 시작했다.

이번 교육은 10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8회(40시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대상은 귀농·귀촌인과 청년농업인 30여 명이며,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및 관내·외 선도농가 등 현장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귀농·귀촌 사례 소개, △머싯, 삼추, 오이, 허브 등 관내 선도농장 견학, △농기계 실습, △치유농장 견학 및 체험, △토양관리, △법률 상식 및 귀농정책 등 성공적으로 진안군에 정착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특히 올해 교육은 작년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던 '우수농가 현장견학'과 '농기계 실습' 등 실습 위주의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에 교육생들의 실질적인 영농역량 강화에 중점을 뒀다.

노금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신규농업인들이 농촌에 잘 적응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식

진안군은 10일 농업기술센터 소교육장에서 '농산물 가공창업 아카데미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가공창업을 희망하는 중소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조직체 육성과 전문 가공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됐다. 교육생 15명 중 출석률 60% 이상을 달성한 12명이 수료했다.

교육은 지난 4월 1일 개강해 6월 10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가공기초이론, △창업절차, △HACCP 위생 법규 및 품질관리, △인허가 절차, △가공실습교육, △우수 가공업체 현장 견학 등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실용적인 커리큘럼으로 교육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펜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